

#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3월 27일(목)

27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 2008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에 마쳐

2007사업보고 · 2008사업계획 · 사무처장 인준 등 심의 의결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KT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수 사장 등 내외의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리산 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2면> 지재식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통신산업의 구조개편, 신정부의 경제와 노동정책 등 KT노동조합이 이

겨나야 할 사안들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KT와 KTF합병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남중수 사장이도 주주총회와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며 KT와 KTF의 합병은 제2의 창사 수준의 격변을 예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측이 노동조합에게 선전포고하듯 구조조정을 발표했던 문제를 지적하며 그룹전락

CFT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빠른 시일내 노동조합과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공격적 목표도 인해 자칫 비영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 명예퇴직 강요 등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노동조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연맹 박흥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부정부패 투기자들을 모아서 내각을 구성했다면서 단기적 경제 부양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게는 매우 소중한 기체이기 때문에 매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중수 사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의 500대 기업의 공통점은 인적자원 즉 내부고객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다고 말하며 건강한 노사협력력이 되어야 기업이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함께 호흡하고 같이 뛰는 노사모습으로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조합원과 우수지부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표창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지부 (총 16개 지부)

▲강북지방본부 전곡지부(지부장=정택근) · 퇴계원지부(지부장=최학근) ▲강남지방본부 가락지부(지부장=최영근) ▲서부지방본부 중동지부(지부장=김동영) · 인천공항지부(지부장=박양근) ▲본사지방본부 영남고객센터(지부장=강봉식)·호남고객센터(지부장=김효중) ▲부산지방본부 북부산지부(지부장=정정식) · 진해지부(지부장=박하린) ▲대구지방본부 안동지부(지부장=김시동) ▲전남지방본부 하당지부(지부장=정광우) ▲전북지방본부 순창분회(분회장=한오현) ▲충남지방본부 충남강원건설지부(지부장=이상철) ▲충북지방본부 서청주지부(지부장=정지국) ▲강원지방본부 강릉지부(지부장=이근재) ▲제주지방본부 제주지부(지부장 직무대행=조순호)

### 우수조합원 (총 12명)

▲김광오(강북지방본부 강북망건설센터) ▲이중근(강남지방본부 송파지부) ▲심홍신(서부지방본부 인천지부 백령분회) ▲김근배(본사지방본부 인재개발원) ▲강성득(부산지방본부 진주지부) ▲박종열(대구지방본부 대구지부) ▲김학중(전남지방본부 광산지부) ▲박종철(전북지방본부 전북NSC지부) ▲이승규(충남지방본부 태안지부) ▲유정근(충북지방본부 충북NSC지부) ▲김규영(강원지방본부 삼척지부) ▲이지만(제주지방본부 신제주지부)

## 2008년도 건강검진 시행 관련 노사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8년도 사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사원 건강검진

- 만40세 이상(1968. 12. 31 이전 출생자) : 20만원
- 만40세 미만(1969. 01. 01 이후 출생자) : 15만원

### ■배우자 건강검진 : 10만원

### ■검진항목 필수사항

- 위암 (4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 ■추진일정 : 2008. 4월 ~ 10월 말

### ■검진기관 선정 : 지부단위 자율

※퇴직 사원도 재직자와 동일한 단가로 수검가능 (단, 본인부담)

## 유무선 통신, 상호진입 규제 완화해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발간

집(유선)전화가 이동전화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것은 가격보다 기능과 품질같은 서비스에 따른 결과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유선전화 가격만 내세워 이동전화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유무선 통화서비스 대체성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유선전화와 통화량은 감소하는 반면 이동전화 통화량은 늘고 있다"면서 "이는 이동전화 품질이 좋아지고, 소비자 통신 이용성향이 변화되는 경향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이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있는 등의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초기에 이동전화는 유선전화에 비해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이동시 즉각적인 통화가 필요한 일부 소비자만 사용했다. 그러나 이동전화 품질이 개선되고 각종 부가기능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 통화 뿐 아니라 음악 청취와 사진 촬영 등에 이동전화 이용되는 것도 가입자 증가를 뒷받침했다.

반면 이메일이나 메시지, 문자서비스 등 비음성 통신수단의 증가는 유선전화 사용량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집이나 사무실 등 유선전화 사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ISDI는 또 무선전화의 소득탄력성이 유선전화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유선전화보다는 무선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품질향상, 즉 통화품질 향상이나 화상전화 등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며 "광대역통합망(BcN) 조기 구축을 통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책적으로는 "유선과 무선 통신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는 유무선 융합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나 역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위원장 대회사

# “통신구조개편, 올바른 대안제시로 돌파할 것”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오신 대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내외의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성을 향한 9대 집행부가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다투어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지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신정책을 담당하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통신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분야가 여러 혜택을 볼 것이라 점쳐지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노동 유연화와 고용 불안이 한국사회를 휩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KT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올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KT에서도 병행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우려와 함께 KT 내부에 다가올 변화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KT와 KTF의 합병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중수 사장이도 주주총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합병을 포함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T와 KTF의 합병은 단지 기업간의 합병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유무선의 융합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2의 창사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반대나 저지라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측도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사측은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막바지

에 이르러 선전포고 하듯 노동조합에 계획을 알리곤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은 저지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찢지 못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사측은 검토 초기부터 노동조합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룹전락 CFT를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일내 노동조합과 논의가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회사는 올해 매출 13조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조합원들에게는 더 나은 고용환경과 임금을 보장한다면 노동조합 또한 반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비영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 명예퇴직 강요 등 비정상적인 경영입니다. 더 이상 기관장들의 자리 보전 욕심에 조합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비영업부서 상품판매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비영업부서 상품판매가 이뤄질 경우 경쟁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영업직 분리될 뒷받침 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책임자를 사행위로 간주해 파면을 포함한 엄중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부분 만큼은 철저히 대응하겠지만 대의원여러분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허수경영의 사례가 발각된다면 바로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조합간부가 힘들 때 조합원이 편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에 조합원들로부터 2008년 한 해는 정말 편안한 한 해였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겨운 2008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그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함께 결의하고 함께 투쟁하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의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대회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0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 2008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08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8.04.14(월) ~ 04.25(금) [토·일요일 제외]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청경, 계약직 포함)

예산집행 : 1인당 2만원 기준

행사내용 : 각 지부 실정에 맞게 시행

- 체육대회, 등산대회, 소풍, 건강달리기대회, 공연관람 등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 및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
-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 2008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모저모

### 전국 600여 대의원 · 조합간부 입소식

3월 19일 지리산 수련관에서 전국 600여명의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입소식이 열렸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노동자에게는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면서 “이미 이명박 정권이 대기업노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통신산업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면서 노동환경의 엄중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전국대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의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3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려있음을 주지하고 전국대의원대회가 힘있는 결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전망과 간부의 역할” 강의 들어

입소식 직후부터 IT정책연구소 조형일 소장으로부터 정세전망과 간부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조형일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신보수주의라며 과거 안보를 중심으로 하던 보수주의와는 달리 탈규제와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시장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규제철폐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무장된 세계 즉 대기업과 힘있는 자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연간 7% 성장, 4만불시대, 7대 경제대국의 747 공약은 이런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폐지, 신자유주의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경제의 위기 상황과 유가와 식량가격의 급등,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바로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노사관도 시장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무급제, 연봉제, 비정규 확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KT그룹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직무급제 연봉제의 문제를 직시하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KT가 이텔이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 뒤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임금격차는 3배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사측의 연봉제 논리에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조형일 소장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2008년은 KT노동조합에게 쓰나미와 같은 상황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중수 사장이 KT가 통신회사가 아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선언하며 대변화를 예고 하고 있고, 통신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친기업 정권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KT노동조합은 선거가 있는 해라며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장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단결을 위해서는 대의원과 조합간부의 활동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조합간부와 대의원이 중심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다가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위원장과의 대화의 시간 가져

19일 저녁 식사 후 간단한 율동과 민중가요를 배운 대의원들은 지재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 ▶ 임금 구조개선에 대해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많이 오를 것처럼 호도하는데 조합원들을 조심모사로 농락하는 것이다. 일본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오직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KT의 임무가 보험회사처럼 개인별 능력의 영향보다는 조직이 어우러져야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과급 확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 ▶ 교섭 시기를 앞당기자에 대해

노동조합은 일부러 교섭을 늦춰 본 적이 없다. 노동조합은 가능한 빨리 교섭을 시작해서 빨리 타결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에 임금협상이 늦어진 것은 회사가 2006년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 민주노총,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일부는 KT노동조합이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단체나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에 기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힘으로 사측에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와 같은 상급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KT네트웍스가 D등급 고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려 문제된 바 있다. 자회사의 제도개약을 통해 결국은 KT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연대해 이러한 제도개약을 막고 있는 것이다.

###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폐회

200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413중 409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으며 ▲2007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심인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뒤 20일 15:00시에 종료됐다.

이존화 사무처장 인준에 대한 찬반투표는 투표자 409명, 찬성 371표, 반대 37표, 무효 1표로 확정되었으며 이존화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국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로부터 혁신과 조직활동 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신뢰회복에 총 매진할 것 ▲사측의 비 영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 강요행위, 명예퇴직 유도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엄단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정부와 사측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등을 결의했다.



## 체험휴가 프로그램 도입 안내

### ■ 체험휴가 개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합원에게 고객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개발 등을 통하여 창조적 활동 능력과 실행력을 육성하기 위한 휴가지원 제도

### ■ 추진방향

- 연차휴가의 창조적 확대 재생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회사에서 지원

### ■ 추진계획

- 대상 : 2급이하 일반직원(2,000명)

- 휴가기간 : 3 ~ 10일 이내

- 지원금액 : 7만원/1일

- 체험과제 : 자율선정 원칙 (현장체험, 사회공헌, 역량향상, 재충전 등)

- 선발기준 : 기관별 자체 심사 및 선발 방식

### ■ 유의사항

- 체험휴가 기간(휴일제외)만큼 연차휴가 일수 차감
- 초과근무 수당과 급식통근비에 영향 없음
- IT직무상의, 교육 및 직무와 연관된 세미나 참석 학습계약제 인정
- 하계 휴가기간 중 체험휴가 미 시행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 근로기준

번호	내용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주 40시간제	50인 이상까지 주 40시간제 적용	○상시20인 이상까지 확대	근기법부칙 제 1조5호	2008. 7. 1
2	건설주 40시간제	〈신설〉	○총 공사계약금액 20억 이상 주40시간제 시행	근기법 부칙 제 5조의 2	2008. 7. 1
3	건설업임금 연대책임	〈신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 2차례 이상 도급 시	근기법 제 44조의 2	2008. 1. 28
4	건설공사도급 임금특례	〈신설〉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특례 - 직상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채무범위 한도에서 - 하수급인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면 일정한 경우 직접지급의무 발생	근기법 제 44조의 3	2008. 1. 28
5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에 임금, 노동시간 등 명시	○근로계약에 임금, 소정노동시간, 휴일 / 연·월차 등 노동조건 명시 -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교부	근기법 제 17조	2007. 7. 1
6	경영상 해고	사전통보기간 60일	○경영상 해고 시, 노조에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축	근기법 제 24조	2007. 7. 1
7	해고의 서면통지	〈신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 없음	근기법 제 27조	2007. 7. 1
8	금전보상제	〈신설〉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근기법 제 30조 3항	2007. 7. 1
9	부당해고 벌칙	부당해고에 대해 형사처벌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근기법 제 107조, 33조	2007. 7. 1

### 일과 가족 균형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로 개정)

번호	내용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배우자 출산휴가제	〈신설〉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3일간의 휴가를 부여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제 18조의 2	2008. 6. 22
2	육아휴직제도	1세미만 사용, 1세 이후 휴직 자동 종료	○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동법 제 19조	2008. 1. 1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신설〉	○육아휴직 기간을 2회로 분할 사용 가능. 기간은 1년 이내임	동법 제 19조의 4	2008. 6. 22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근무할 수 있음.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정함.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됨. 단축기간은 평균인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	동법 제 19조의 2, 3	2008. 6. 22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동법 제 22조의 2	2008. 6. 22
6	일 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신설〉	○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노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동법 제 22조의 3	2008. 6. 22
7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이의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 근로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함	동법 제 14조의 2	2008. 6. 22
8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보고 사업장 확대 실시	동법 제 17조의 3	2008. 2. 29
9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	〈신설〉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2	2008. 7. 1
10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전부 신설〉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 인증 등 제반에 관한 사항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08. 6. 15

### 비정규직 관련

번호	내용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비정규직 차별시정 적용 확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적용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부칙 제1조 제3호	2008. 7. 1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관련

번호	내용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제3자 지원	제3자 지원 금지	〈폐지〉	노조법 제40조 삭제	2007. 7. 1
2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 규정	○규약에 명시해야 할 '쟁의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노조법 제11조 12호	2007. 7. 1
3	직권중재 폐지	직권중재 규제	○직권중재 폐지. 단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확대 허용	제 74, 75조 삭제	2008. 1. 1
4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철도,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 석유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증기/온수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 추가	노조법 제 71조 2항	2008. 1. 1
5	필수유지업무 (정의 / 범위)	〈신설〉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되며, 쟁의행위를 통해 해당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음.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됨	노조법 제 42조의 2 노조법 시행령 제 22조의 2	2008. 1. 1
6	필수유지업무 (협정제결)	〈신설〉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해 노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서면협정을 체결함	노조법 제 42조의 3	2008. 1. 1
7	필수유지업무 (노동위결정)	〈신설〉	○노사가 협정제결에 실패했을 때, 쌍방 혹은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함. ○쌍방 혹은 일방의 불복시에도 특별조정위의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기존 결정 유효	노조법 제 42조의 4	2008. 1. 1
8	필수유지업무 (근로자지명)	〈신설〉	○노사협정 혹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동안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 ○사용자는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 지명하고 해당근로자 및 노조에 통보 ○쟁의행위 이전까지 노조가 이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자지명	노조법 제 42조의 6	2008. 1. 1
9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철도, 수도 / 전기 / 가스 / 석유정제 / 석유공급, 병원, 은행, 통신사업	○모든 사업에 있어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도급, 하도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 신규채용, 도급, 하도급 허용. 단,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 중 50%까지 제한 ○파업참가자의 산정: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파업참가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	노조법 제 43조 노조법시행령 제 22조의 4	2008. 1. 1
10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쟁의행위의 예고' 포함	○'쟁의행위의 예고'가 삭제되고, 대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가 포함	근법법 제 19조	2007. 7. 1

### 산업안전보건 분야

번호	내용	종전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존 의무	〈신설〉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원인조사 방해목적으로 훼손 금지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제 5항	2008.1. 1
2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신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2	2008.1. 1
3	산재예방 보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	〈신설〉	○거짓·허위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및 환수 근거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	2008.1. 1
4	외국인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 노력의무신설	〈신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는데 노력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단서	2008.1. 1
5	건설업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특례	건설업은 '산업안전'과 별도 '협의체'	○산보위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일원화(의무사항 아닌 선택사항) 운영가능 -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2	2008.1. 1

#### 우리사주 조합원 총회 소집·공고

KT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8조, 제9조 및 운영세칙 6조에 의거, 조합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8. 4. 8. 09:00 ~ 18:00
- 장 소 : 단위기관
- 대 상 : 우리사주조합원
- 목적사항  
- 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  
- 우리사주조합장 선출

2008. 3. 25

KT 우리사주 조합장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 소집 및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



우리사주조합원 총회 소집 및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

KT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3조 및 운영세칙 9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8. 4. 8. 09:00 ~ 18:00
- 장 소 : 단위기관
- 대 상 : 우리사주조합원
- 목적사항 :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출

2008. 3. 25

KT 우리사주 조합장

## 2007년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총평



2007년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2008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시행됐다. 김진옥 회계감사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총체적으로 조합비

의 운영이 잘 됐으나 몇 가지 증빙서류 및 행정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환수 8건, 행정지도 5건을 지적했다. 반면, “모든 감사 자료의 준비 상태가 양호하며 상반기에 지적한 사항이 전액 환수 조치된 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며 예산의 신중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환수 대상 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회수 처리를 요구하고 조합비 집행에 회계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평을 마친 후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 감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보완 조치와 함께 회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합비를 더욱 아껴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위원회, 여성주의 의식 고취 수련회 개최

IT연맹 여성위원회는 여성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을 지난 3월 7~8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

노동조합 손승옥 여성국장을 비롯하여 각 단사의 여성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여성수련회는 여성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뻘뻘한 강의 일정 속에서도 진지한 태도로 강연을 수강한 여성 조합원들은 전희경 강사의 1강을 통해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여성주의, 권순현 강사의 2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을 어떤 관점과 대응을 하는지 살필 수 있었다. 둘째날인 8일은 민주노총이 서울 시청 광장에서 주최하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장소인 시청일대를 답사하면서 서로간의 친교를 다졌다.

한편, ‘3·8 세계 여성의 날’ 100년을 맞아 가정과 일터에서 차별과 억압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성 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서

울 시청 광장에서 주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그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여성노동자 644만 명 중 70%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과 억압을 날려버리고, 노동이 희망이 되는 사회, 노동권과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해 100년 전 여성노동자들이 투쟁했던, 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차별 없는 일터와 당당한 삶을 위해 우리도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 100년을 맞아, 한국 모든 여성과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IT연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IT연맹은 지난 3월 19일(수) 지리산수련관에서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KT노동조합 지체시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이 모여 18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을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IT연맹 박흥식위원장은 “며칠 전 코스콤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농성장 강제 철거와 폭력 연행은 노사자율 원칙을 팽개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의 신호탄”이라 정의하고, “앞으로 전개될 공안 정국 속에 연맹과 가맹조직이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탄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각 가맹조직 보고를 시작으로 ▲전차회의 결과 보고 ▲제1차 중앙위 및 정기대회 회의 결과 보고 ▲여성간부수련회 및 3·8여성대회 참가 보고 ▲민주노총 법률학교 참가 보고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보고 ▲제주4·3항쟁 60주년 정진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계획 보고 ▲민주노총 직선제 운용 방침과 산별현장대장정 등 보고 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금강산 통일기행 개최 건 ▲제18대 총선 정치자금 모금 요청 건 ▲18대 총선 승리를 위한 상근인력 파견 요청 건 ▲4월 산재 사업관련 민주노총 사업담당급 납부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집 성원들은 18대 총선과 관련하여 각 조직별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총선 승리의 기쁨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4월 예정이던 금강산 통일기행은 가맹조직 일정에 따라 하반기로 순연되었으며, 총선 상근 인력 파견 건에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라 연맹 장용준 조직실장의 전라지역 파견을 확정했다.

## KT파워텔노동조합 박흥식 위원장 당선



KT파워텔노동조합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박흥식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KT파워텔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부재자 투표를 포함 전국 지부 별로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재직 116명 중 114명이 투표(98%), 찬성 94명 반대 19 무효 1표로 박흥식 위원장 당선을 공식 발표하였다.

박흥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급변하는 통신방송 환경을 예의주시하며 종사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한 “IT연맹 및 가맹조직과의 유기적 연대를 공고히 하여 악화된 노동정세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조직 강화에 힘쓸 것”임을 표명하였다.

한편 박흥식 위원장은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기업 가치 향상 ▲임금 및 복리 후생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 황사,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염, 축농증, 안질환 등 유발... 호흡기 기능 악화시켜

봄이 오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재해가 황사이다. 이제 황사가 불어오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당연시 되고 있다. 황사는 연중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해야 한다. 최근 황사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황사의 이동경로가 중국을 지나면서 납, 질산 및 아황산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기 때문이다. 이런 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한 먼지는 비염이나 축농증, 안질환 등을 유발하고, 호흡기 깊숙이 침입,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황사철 안전관리 요령

구분	발생 전	발생 중	발생 후
가정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점검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준비	· 가급적 외출삼가, 외출시 보호의복 착용 · 귀가 후 깨끗이 씻고 양치질 필수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 노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학교	· 학생 비상연락망 연락체계 유지 · 황사발생 피해예방 행동요령 지도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중지 및 연기	· 학교 실내·외 방역 통한 먼지 제거 · 황사발생 후 전염병 예방접종
농가	·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 가축 신속히 대피, 황사에 노출방지 ·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황사 끝난 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신고

### 황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및 대처방법

질환별	주 증상	대처방법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곤란 ◎목의 통증 ◎기관지, 기도점막의 염증 ◎기침 등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의 유입 차단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한다. ◎물을 많이 마신다.
안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눈의 가려움증 ◎눈물이 남 ◎눈이 빨갛게 충혈됨 ◎눈에 뭔가 들어간 것같은 이물감과 통증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옴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의 착용을 삼간다.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낸다. ◎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곤란 ◎목의 통증 ◎기관지, 기도점막의 염증 ◎기침 등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콧속을 씻어낸다.
피부질환	◎피부의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외출 시에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다. ◎피부에 로션 등을 발라 흠뻑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황사철 음식관리 이렇게 하자!

- 1. 야채, 과일은 더 씻고, 행궤서**  
황사가 심할 때 야채와 과일은 특별히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한다. 황사 먼지나 중금속이 잘 씻겨나가도록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야채와 과일을 씻는다. 특별한 세제를 쓰는 대신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과일을 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2. 기운을 북돋우는 한방차 한잔**  
눈과 목이 쉽게 피로해지는 때인 만큼 그냥 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한방차를 끓여 마셔 보자. 눈에 좋은 결명자와 구기자를 넣은 차, 기관지에 좋은 오미자를 물에 넣고 끓여서 식었다가 꿀을 내내 마시면 된다.
- 3. 해독 음식으로 기관지를 건강하게**  
먼지를 많이 마시면 흔히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 하지만 돼지고기보다는 콩나물과 도라지, 감자 등의 야채가 황사 먼지 해독에 효과적이다. 도라지와 콩나물, 숙주나물은 기관지에 좋은 음식으로 모래 먼지에 칼칼해진 목을 씻어준다.
- 4. 물 많은 음식이 제일!**  
땀을 흘려 심심하게 끓인 된장국, 콩나물 뿌리까지 넣은 콩나물국, 북어국, 황사에는 수분 공급과 해독을 도와주는 국을 많이 먹는다. 감기 걸리기 쉬운 황사철, 아이들에게는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자주 먹여서 비타민을 보충해준다.

# 체신공제조합 최후배당금 송금 개시 안내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의 최후 배당금에 대한 은행 송금 이체가 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대상인원 : 84,380명
- 나. 지급대상 : 체신공제조합 해산일(1999. 6. 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조합해산일(1999. 6. 29) 이전 퇴직자는 탈퇴금(원금+할증금) 전액을 지급 완료
- 다. 개인별 배당액 : 채권확정액(잔여할증금 50%)의 18.55%에 해당하는 금액
- 라. 지급개시일 : 2008. 3. 24(월)
- 마. 지급방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2000년 할증금 송금계좌)  
※지급계좌변경신청을 하신 분은 변경된 계좌로 송금
- 바. 지급순서 : 장기근속 조합원(채권자)부터 순차적으로 송금
- 사. 지급종료일 : 2008. 4월 초순 예정  
※1차 지급 종료 후 지급계좌 불능에 따른 미송금자에 대해서는 추후 계좌확인 후 재송금할 예정입니다.
- 아. 협조사항 : 체신공제조합에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송금확인은 가급적 홈페이지(http://chegong.or.kr) 배당금지급내역의 은행이체일 확인 또는 본인의 신청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